

지역 매 아리

정읍농기센터, 오지마을 농업기계 순회교육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순회교육에 나선다. 순회교육에서는 정비기술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요령 등을 안내한다. 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순회교육팀을 운영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3일씩 지역 내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90여개의 오지마을을 찾는다.

순회교육팀은 경운기와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기종 농업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자가 수리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정비가 어려운 농업기계는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정비를 실시한다.

기술센터는 3인원 미만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3인원을 초과하는 부품비는 농업인이 부담한다.

안전교육에서는 야간 사고 발생이 많은 주행형 농업기계에 반사판 등을 부착하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기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지마을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회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539-6287)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거 부담 해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정읍시가 농촌지역의 빈집(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희망 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방치돼 있는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계층을 비롯 청년과 귀농·귀촌자 등에게 주거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가(예술 작가)에게는 문화방과 공부방, 마을 책방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억2천만원을 확보, 6동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며, 완료 후 입주희망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 하는 방식이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건축과(539-5882)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입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마을(문화)활동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을축제 모두 함께해요”

고창군, 바지락 페스티벌 · 책영화제 전북대표 시골마을축제 선정

고창군 지역공동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든 '고창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과 '책영화제 고창'이 전북대표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선정됐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2019년 전북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 공모'에 2건의 지역축제가 선정돼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창군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향토자원 특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를 발굴하고 공모했다.

'고창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은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고창바지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 마을예술축제 '책영화제 고창'은 폐교된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 책과 인문컨텐츠를 활용해 우리



고창군 지역공동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든 '고창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과 '책영화제 고창'이 전북대표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선정됐다.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호평을 가 협업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 받았다. 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내일 부안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부안쌀 천년의 솜씨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가 열린다.

수준 높은 경기 교류와 지역민의 화합 한마당

내일 부안쌀 천년의 솜씨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 개최

전국의 탁구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제6회 부안쌀 천년의 솜씨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가 오는 3월 1~2일 2일간 부안실내체육관에서 부안군탁구협회(회장 김대준) 주관으로 열린다.

올해로 6번째 맞는 이번 대회는 개인전 및 단체전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전국의 우수한 클럽 및 선수들이 참가해 동호인들의 수준 높은 경기 교류

와 지역민의 화합 한마당으로 부안군의 품격을 높일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군에서 전국 동호인탁구대회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이번대회를 통해 전국의 탁구동호인들의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부안쌀 천년의 솜씨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는 부안군탁구협회 김대준 회장의 탁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지난 2014년 제1회 전국대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며 탁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에 일조를 했으며 매년 1,000여명이 참가하는 명품 전국탁구대회로 발전시켰다. /부안=김석진기자

수제화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나선다

정읍시 - 한국제화협회 협약

정읍시가 수제화 기술인력인 청년 슈메이커(Shoe Maker) 양성에 나선다. 시는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수제화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진섭 시장과 박광한 (사)한국제화기술인협회장은 지난 26일 시장실에서 청년 슈메이커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제화기술인협회(이하 제화협회)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이 만든 협회다. 수도권 인건비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수제화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와 제화협회는 협약을 계기로 청년 슈메이커 양성에 나선다. 특히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맞춤형 청년 수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유 시장과 박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수제화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읍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특히 "저렴한 값과 우수한 청년 인력 등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국립공원 내장산과 국책연구소의 연계한 제화산업·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시에서도 수제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읍 청년 메이커 센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고, 시비를 포함 총 12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청년 메이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청년메이커 센터는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이곳에는 기술교육장과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순회 교육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읍보건소와 정읍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여성 농업인을 농업 현장의 중간 교육자로 양성해 진드기 매개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쯤즈기무시증 등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또 야외 활동 후에는 즉시 목욕을 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정읍시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발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지난해 380ha(조사료 161ha, 일반작물 66ha, 두류153ha)에서 992ha(조사료 420ha, 일반작물 150ha, 두류 300ha, 휴경 122ha)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사업비 12억2천1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33억7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균 지원단가는 ha 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

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지원된다.

사업 대상 농지는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2018년 벼 재배농지다.

대상품목은 무와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과 다년생 작물이 해당된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수매 예정이고, 조사료는 자가소비와 생산물량은 축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 계약에 판매계획이다.

농가의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치등 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on the left and several gift set options on the right. The text includes the brand name 'Mulberry Wine', a slogan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details about the wine's quality and various gift set prices and contents. A cartoon bear mascot is also present.